

차기 대통령 최우선 자질은... 中企 절반 “경제성장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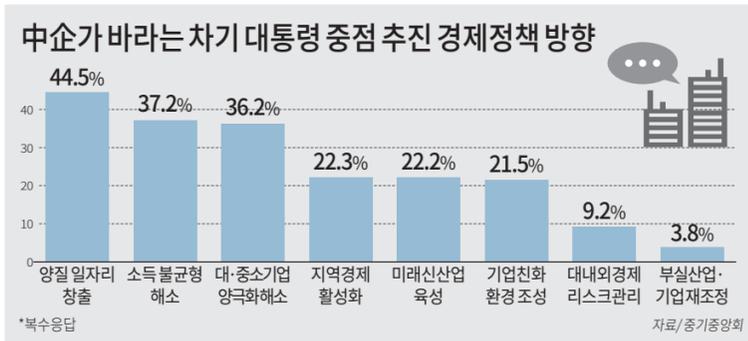
중기중앙회 600개사 대상 설문
소통능력·도덕성 順 뒤이어
정책 부문 1위는 ‘일자리 창출’
최우선 개혁 분야엔 ‘노동’ 꼽아

중소기업·소상공인 절반 가량은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경제성장 견인’을 꼽았다.

차기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지목했다.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분야로는 ‘노동’이 1순위로 꼽힌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절반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대선공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제조업 300곳, 비제조업 300곳 등 총 60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진행해 7일 내놓은 ‘20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중복응답)에서 나왔다.



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중복응답)에서 나왔다.

중기중앙회는 각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기 전인 지난 7월부터 10월 사이에 대선 예비후보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현장 애로를 전달한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능력·조건으로 ‘경제성장 견인능력’이 48.8%로 1위를 차지했다. 이

외에 ‘소통능력’(41.2%), ‘도덕성과 청렴성’(40%),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39%)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으로는 응답자의 44.5%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목했다. 다음으로는 ‘소득 불균형 해소’(37.2%),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36.2%), ‘지역 경제 활성화’(22.3%) 순이었다.

다만 200명 이상 기업에선 ‘소득불균형 해소’(44.7%)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40.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차기 대통령이 취임 후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분야로는 ‘노동개혁’(42.7%)을 ‘규제개혁’(36.5%), ‘금융개혁’(35.5%)보다 중요하게 인식했다. 이외에 ▲정치개혁(34.8%) ▲정부조직개혁(21.5%)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대선공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도 ‘주52시간 개선 등 근로시간 유연화’(49.3%)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뒤이어 ▲최저임금 산출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실 반영(44%) ▲납품단가 등 대·중소기업 거래공정화(26.8%) ▲불합리한 공공조달제도 개혁(15.5%) ▲온라인 플랫폼 유통시장 공정화(15.2%) 등도 대선공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런 가운데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중소기업·소상공인 성장과 경영안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54.7%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확대’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낮은 사회인식’(40.3%),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3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계는 차기 대통령이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제상황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길 바란다”며 “아울러,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구조적 문제인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와 주52시간제, 최저임금 개선 정책들이 차기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반영돼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에서 중소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소진공, 위드 코로나 전통시장 활성화 앞장

관광공사·상인연합회와 손잡고
바우처 운영, 관광 연계 상품개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한국관광공사, 전국상인연합회와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소진공은 지난 5일 서울 마포에 있는 드림스퀘어에서 관광공사, 상인연합회(전상연)와 위드 코로나 시대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및 고객 유입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소진공과 관광공사, 전상연은 기관·단체가 보유한 노하우와 자원을 활용해 ▲전통시장 관광 바우처 운영 ▲전통시장·관광지 연계 상품개발 ▲특성화시장 관광 활성화 컨설팅 등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전통시장 관광 바우처’를 이달 중 진행한다.



(왼쪽부터)전국상인연합회 정동식 회장, 소진공 조봉환 이사장, 한국관광공사 안영배 사장이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전통시장 관광 바우처’는 전통시장, 관광 전문가들이 선정한 전국 20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바우처는 지역 관광명소, 관광안내소 등에서 개인에게 5000원권 1매를 배포하며 해당 전통시장에서 올해 12월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관광객들의 활발한 이벤트 참여로 기간 내 바우처

가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할 예정이다.

이번 협업과 연계해 각 기관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전통시장 활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소진공은 코레일관광개발과 함께 전통시장과 철도를 연계한 팔도장터 관광 열차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관광공사는 이달 말까지 코레일, 롯데호텔(11개 지점), 전국 14개 지자체 및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공동으로 ‘전통시장 가는 달, 시장이 여행이 되다!’ 캠페인을 온·오프라인으로 펼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고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이 되도록 전통시장의 위생·방역 활동을 더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장애인 고용 中企에 내일채움공제 지원

중진공-장애인고용공단 ‘맞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 지원에 나섰다.

중진공은 지난 5일 경기 성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사에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장애인 상생협력형 공제 공동 지원 ▲사회적경제 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창업기업 대상 멘토링 ▲장애인 채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중소기업 및 장애인 근로자와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가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상생협력형 공제 협약은 중진공이 2015년 상생협력형 공제를 도입한 이후 공공기관과 협업해 기업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최초 사례다. 또한 중진공이 직원 급여 끝내기로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기업 부담금 절반을 직접 지원하는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돕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기업 납입금 부담으로 인해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장애인근로자 등의 가입률이 낮은 상태다.

이에 따라 중진공은 장애인고용공단과 손잡고 사회적경제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재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키로 했다. 중진공과 장애인고용공단은 사회적경제기업 5개사 장애인 근로자 8명을 대상으로 기업 부담금 20만원을 매달 10만원씩 공동 지원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장애인 근로자가 재직 중인 기업의 공제 부담금을 전액 직접 지원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과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도울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력이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ESG경영을 실천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좋은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LX하우스 ‘지인스퀘어’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에 첫 선

LX하우스는 7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에 전용면적 555㎡(168평) 규모의 대형 리모델링 매장 ‘LX Z:IN 인테리어 지인스퀘어롯데백화점 청량리’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지인스퀘어롯데백화점 청량리’는 프리미엄 키친·창호·바닥재·벽지·도어 등의 주요 인테리어 제품이 적용된 아파트 모델하우스 콘셉트의 전시관부터 자재 라이브러리까지 구성됐다. /김승호 기자

쌍용C&E, 지속가능성지수 시멘트업종 1위

경영 투명성 강화, 환경보호 등 인정

쌍용C&E가 ‘2021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8년 연속으로 시멘트업종 1위 기업에 올랐다.

7일 쌍용C&E에 따르면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는 기업의 폭넓은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시상하는 것으로, 올해 지속가능성지수(KSI)는 48개 업종, 202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쌍용C&E는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소비자 고객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실천 등에서도 선도적인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쌍용C&E 이현준 대표는 “ESG경영을 기본으로 하는 공정한 기업활동을 통해 미래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새 이사장에 남민우 회장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회장(사진)이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제4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남민우 이사장의 임기는 향후 3년간이다.

재단은 지난 2010년 10월 청년 및 예비창업자 등의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기업가정신을 공유·실천하는 플랫폼 역할 및 청년기업가 육성을 위해 벤처 1세대인 남민우 이사장, 황철주 회장(주성엔지니어링 대표) 등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중소벤처



기업부가 출연해 설립했다.

남민우신임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New 기업가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기업가정신이 가정과 청소년층까지 보급·확산되고 많은 국민으로부터 존중받는 국민적 가치관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尹 총장 때 대변인 휴대폰 공수처 넘긴 대검... ‘하청감찰’ 논란
- ▲이재명 “올해 초과세수 40조... 부자 나라에 가난한 국민 온당한다” /사진 뉴시스

- ▲힘겹지만 계속되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 손·김 재소환 가능성
- ▲환경장관, COP26 참석해 주요국과 기후·환경 협력 강화



- ▲백신접종 국민 76.6% 완료... 80%까지 175만명 남아
- ▲오늘부터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54개 직종·909명 참가 /사진 뉴시스